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꽃

| 월인 |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마음은 모두 '생겨난 마음'인 상대적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생겨나지 않은 절대적 마음, 본래 면목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 절대심을 알아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 마명이 이 대승기신론을 지은 이유인 인연분 중 네 번째 이유입니다)

四者爲令善根微少衆生修習信心故。
사자 위령 선근 미소 중생 수습 신심 고

넷째는 선근이 미약한 중생으로 하여금 신심을 수행하고 익히게 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는 선근미소중생善根微少衆生(선근이 상근기보다 좀 약한 중생)이 신심信心을 수행하고 익히게 하기 위함으로, 신심을 수행하기 위한 네 가지를 이야기해줍니다. 네 가지 신심으로 첫째는 근본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근본(의식의 근본, 생명의 근본, 삶의 근본)을 믿고 그 근본을 추구하는 마음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처, 즉 근본을 파악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는 선근의 마음을 일으켜, 일체의 지혜를 구하도록 계속 해서 독려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여섯 가지 바라밀(보시布施, 인욕忍辱, 지계持戒,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행동지침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리아타自利利他,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살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신심에 따른 네 가지 수행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입니다.

五者爲示方便消惡業障, 善護其心, 遠離癡慢, 出邪網故。
오자 위시 방편 소악업장 선호기심 원리치만 출사강고

다섯째는 방편을 보여 악업장惡業障을 소멸하고, 그 마음을 잘 보호하며,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멀리 떠나고, 사악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
이요.

다섯 번째는 방편을 보여서 악업장(惡業障)을 없애는 것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관성(이전 세대
즉 아버지 세대나 그 이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에너지 장, 악업의 장, 습관적
인 경향성)을 다루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세대부터 계속해서 내려
오는 관성, 다시 말해 숙명을 다루는 것이죠. 모르게 스며들어 내 몸과
마음에 짐 지워져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나’라는 것이 그런 것들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허구임을 파악하게 되면 이
악업장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그와 동일시
되어 이 악업장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교만
을 멀리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운명(運命)과 숙명(宿命) 중에서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 개척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숙명은 바꾸기 힘든 것
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宿) 운명(命) 즉, 숙명이라고 표현한 것입
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중에 악업의 장애가 있다면 그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편을 보여줍니다.

六者爲示修習止觀，對治凡夫二乘心過故。

육자 위시수습지관 대치범부이승심과고

여섯째는 지관(止觀)을 수행하고 익혀 범부(凡夫)와
이승(聲聞僧과 緣覺僧)의 마음의 허물을 대치하기 위함이다.

악업장을 없애는 방편 중의 하나가 지관문(止觀門)입니다. 지(止)는 경계
짓는 마음(境界相)을 그치는 것으로서, 범어로 사마타(Samatha)라고 합니
다. 관(觀)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인연생멸상(因緣生滅相)을 계속해서 바라

보는 것으로 위빠사나Vipassana을 말합니다. 위빠사나의 핵심은, 생멸하는 마음의 상相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임시적인 것임을 파악하여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觀은 ‘나와 대상’이라는 내적 분열을 파악하여 ‘나’는 ‘대상’에 의존하고, ‘대상’은 ‘나’에 의존하여 생성됨을 직시함으로써 독립적이라고 믿고 있던 ‘나’와 ‘대상’, 그리고 그것의 생멸이 헛된 것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르는, 깨어있기™¹⁾ 식으로 말하자면, 분별을 그치고 감각感覺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들어가면 나와 대상의 분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다가 감각 상태로 들어가면 사물이 더 이상 사물이 아니게 되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삼매三昧로 들어갑니다. 사마타는 집중연습부터 합니다. 어떤 사물 하나를 바라보고 집중하여 그 외의 다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하나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마타 수행방법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 벌써 마명은, 사마타만 추구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게을러져 여러 선한 행동을 멀리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요와 평화로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라앉아 세상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선악 역시 일종의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를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움직임 속의 고요를 추구하라(必救靜於諸動).’고 승조법사가 얘기했던 것이죠. 고요 속에서 고요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구하라고 했어요. 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움

1) 미내사에서 행하는 ‘깨어있기’ 워크숍으로,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라는 책을 교재로 실제 체험을 위한 워크숍이다.

2) 역시 ‘깨어있기’ 프로그램의 용어로 상기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의식적 분별은 없지만 자극으로서의 알아챌만 있는 의식의 특정 상태.

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마타나 감각수행은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고 게을러져서 움직이지 않으려 하며 무기력해집니다. 결국엔 무기공에 빠지고 말지요. 즉 본질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별적 현상이 곧 분별없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명은 지행止行과 관행觀行을 동시에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마타를 할 때 마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 모든 분별을 떠나서 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인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이런 사마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끊임없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사마타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위빠사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나와 대상'의 분열은 어떤 경계境界(마음의 분별)에 부딪혔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와 대립하여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강렬하게 화가 일어날 때 '나'와 '대상'이 명확하게 느껴지죠. 누군가 내 생각에 반하는 말을 하며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하면 나와 대상이 강하게 일어났다가 차츰 사라집니다. 만약 나와 대상이 원래 그렇게 강렬하다면 매순간 느껴져야 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나와 대상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대립하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강렬하게 '나'라는 느낌이 올라오지요.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고, '나'라는 느낌은 '가변적'임을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위빠사나이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연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사마타, 즉 지교도 병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행법을 나눠놨지만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 둘은 둘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어떤 의문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저절로 사마타가 됩니다. 어떤 관찰과 의문 속에 깊숙이 몰입해 있을 때는 저절로 집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둘이 아닌데 설명하자니 둘이고, 그래서 지止와 관觀이라고 나누어서 설명했지만 둘이 아닌 지관문止觀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둘 같지 않은 둘로 설명한 거예요.

七者爲示專念方便, 生於佛前, 必定不退信心故.
칠 자 위 시 전 념 방 편 생 어 불 전 필 정 불 퇴 신 심 고

일곱째는 방편에 전념함을 보여 부처님 앞에 태어나 불퇴의 신심을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다.

지성이 약해서 지관止觀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염불을 수행하라고 합니다. 티베트에서 하듯이 만트라Mantra를 외우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어떤 문구를 외우다 보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이익이다’라고 말해주면 ‘나’는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염불을 합니다. 마음을 집중시키는 방편이 염불이고 만트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방편밖에 안 돼?’하고 소홀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만트라에 신비감을 불어넣고 중요성을 집어넣는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에게만 특히 해당되는 문구나 소리는 그의 마음과 몸에 공명하여 더 잘 집중이 되고 깊은 삼매 속으로 들어가게 하니까요.

수행신심분의 끝에서는 염불에 전일하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신심을 배워서 바른 믿음(본질을 추구하는 마음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는 불퇴전의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선근미세중생은 그 마음이 겁약怯弱하여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신심은 성취하기 어렵다’고 여겨 물러

서므로(退轉), 이를 다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극락정토(極樂淨土)에 태어나게 된다는 원願을 세우고 염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이유입니다.

八者爲是利益勸修行故。
팔 자 위 시 이 익 권 수 행 고

여덟째는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고하기 위함이다.

대승기신론을 지은 마지막 이유는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하기 위함인데 이를 설명한 것이 마지막 장인 권수이익분입니다. 권수이익분에서는 어떤 이익을 얘기하느냐 하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수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많은 선행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기신론의 법法을 한번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법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해요. 이것이 진짜 법을 향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법을 하루 수행한 공덕은 한이 없음을 말함으로써 그 어떤 선행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는지 권수이익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有如是等因緣, 所以造論。
유 여 시 등 인 연 소 이 조 론

이러한 인연이 있기에 논을 지은 것이다.

2. 입의분立義分

입의분立義分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대승기신론의 핵심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해석분解釋分에서 이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지만, 실상 해석분은 입의분을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석분이 논리적으로 잘 이해되므로 현대인에게 제일 잘 맞는 장이지만, 입의분은 그 핵심이 들어있는 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의분의 핵심은 심진여문心眞如門과 심생멸문心生滅門에 대한 설명과, 그 둘이 다름 아닌 하나의 마음(一心)이라는 것입니다. 일심一心이 곧 의식의 본질이며, 생명과 만상의 본질이니 마음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일심에는 두 가지 양태(相)가 있는데 심진여상心眞如相과 심생멸상心生滅相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진여도 하나의 상相이고, 생멸도 하나의 상相으로, 일심一心을 기반으로 일어난 상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마음, 평상심平常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대적인 마음과 절대적인 마음이 모두 있다는 것인데, 이 점이 대승기신론을 혁명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즉, 진여 또한 상相이라고 하면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철저하게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입의분 원문을 해석하며 살펴보겠습니다.

已說因緣分。次說立義分。
이 설 인 연 분 차 설 입 의 분

摩訶衍者總說有二種，云何爲二。
마 하 연 자 총 설 유 이 종 운 하 위 이

一者法, 二者義. 所言法者 謂衆生心.
일 자 법 이 자 의 소 언 법 자 위 중 생 심

이미 인연분을 말하였으니 다음에는 입의분을 말하겠다.
대승이란 총괄하여 설명하면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법法이고 둘째는 의義다. 소위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중생심을 말한 것이다.

마하연摩訶衍은 대승의 의미입니다. 법法이라고 하면 보통은 달마 Dharma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法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뜻합니다. ‘중생심’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고 했어요. 즉 중생의 마음에 진여와 생멸의 문,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심一心을 해석할 때, 마음의 진여(본체)와 생멸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중생심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是心則攝一切世間法出世間法.
시 심 즉 섭 일 체 세 간 법 출 세 간 법

이 마음은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함한다.

세간법世間은 일반 세상, 즉 중생심이 뛰노는 세상을 뜻하고, 출세간 법出世間은 상대 세계를 넘은 절대 세계를 말합니다. 법法이란 그 세계에서 작용하는 모든 법칙, 지혜, 진리 등을 뜻하는데, 출세간법과 세간법 모두 다 중생심이 포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依於此心顯示摩訶衍義. 何以故?
의 어 차 심 현 시 마 하 연 의 하 이 고

是心眞如相, 卽示摩訶衍體故. 是心生滅因緣相, 能示摩訶衍
시심진여상 즉시마하연체고 시심생멸인연상 능시마하연

自體相用故.
자체상용고

이 마음에 의거하여 대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어째서인가?
이 마음의 진여상이 대승의 체를 보이기 때문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대승 자체의 상相과 용用을 잘 보이기 때문이다.

마하연의摩訶衍義가 뜻하는 것은 중생심 안에 진여의 상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진여 자체가 아니라 진여의
상相입니다. “깨달았다, 진리를 발견했다, 경험했다” 하는 모든 표현
과 말은 결국 상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마명은, 부
처님은 깨달은 믿음(信)을 가지고 있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믿음(信)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모두 믿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어
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는 그저 상相을 가지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상相이라는 것
은 마하연체摩訶衍體(대승의 본체)를 보여주지만, 체험시키거나 직접 마
음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상相으로써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
니다. 이렇게 일심一心의 진여상眞如相은 대승의 체體을 보여주고, 일심
의 생멸인연상生滅因緣相, 즉 나고 죽고 인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相은
대승 자체의 상相과 용用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用은 쓰임새
를 말하는 것으로 앞에 나온 체體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본체와 작용이
죠. 진여상은 본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생멸인연상은 대승의 모습相과
작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법法을 중생심衆生心이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생은 짐

승으로부터 나온 말로서 살아있는 모든 것, 또는 생명 없는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대승大乘에서 말하는 법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일체의 일반적인 마음과 그 일반을 초월하는 마음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간법世間法이 상대적인 마음 즉 비교를 통해서 아는 마음이라면, 출세간법出世間法은 초월적인 마음, 상대적인 것과 상관없이 있는 마음, 진여의 마음,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여상이 대승의 본체이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대승의 작용과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중생심) 안에 진여상과 생멸인연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마음과 상대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마음은 비교를 통해서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하늘은 검검합니다. 구름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려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는 이런 것이 생멸인연상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구름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름 위는 어떨까요? 구름 위에는 아무런 날씨도 없습니다. ‘맑은 날씨’가 아니라 ‘날씨가 없어요’. 구름 위에 날씨가 없는 이유는, 날씨를 만들어내는 것은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흔적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흔적들, 또는 신념들이 마음의 날씨를 만들어내는 구름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구름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대적相對的인 날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

대적인 마음인 날씨 저 위에는 날씨없음이 항상 함께 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저 위에만 날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에도 날씨는 여전히 없습니다.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구름 위와 구름 아래가 다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공간과 비가 없는 공간이라는 현상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이와 같이 마음이 일어나 감정으로 휘몰아치는 내적인 공간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폭우가 쏟아지는 저 대지는 한 치도 젖지 않았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나와 대상이 부딪혀서 생겨나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마음의 흔적들에 에너지가 쏟아져 나뉘지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마음속 분리에 의해서 수많은 일들이 생하고 멸하게 됩니다. 마음을 떠난 곳에는 탄생과 죽음이 없습니다. ‘내’가 탄생과 죽음을 보는 것이기에, 내가 없으면 세상에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것은 탄생이야’라고 이름을 붙이면, ‘탄생은 씨앗 때문에 생겨난 거야’라는 인연상(因緣相)을 보입니다. 만물은 십이인연(十二因緣)으로 인한 것인데, 이 십이인연은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요? 바로 마음의 ‘분별작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양자물리학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어떤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한가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주 전체가 한 사물의 탄생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어떤 현상을 ‘이것’과 ‘저것’이라고 정해놓고 분별시켜서, 이것은 저것 때문에 일어나고, 저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개념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과 저것이라

는 ‘분별’이 없다면 거기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이렇게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십이인연설이 의미 있지만, 개념을 떠난 사람에게 인연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 내는 상相일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생멸인연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멸인연상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 구름 위 ‘날씨 없는 세상’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중생심이라는 것은 구름 위와 구름 아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생심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생명력의 본체는 구름 위의 세상世上이고, 그 생명력이 천변만화하면서 만들어 내는 생멸인연의 상은 구름 아래의 세계世界, 대승(생명력)이 ‘작용하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생심입니다. 참나의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 따로 있고, 그것이 오염되어 만들어진 마음이 중생심이라고 소승小乘이 말했다면, 대승大乘은 그 둘 다인 이 한 마음이 절대적 마음이며 동시에 상대적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작용을 멈추면 그 자리가 바로 절대적 자리가 됩니다. 모든 작용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본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떤 작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본체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체 없이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현상이라면 그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근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집 앞의 은행나무, 감나무들이 아주 거세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 숲은 잘 안 흔들립니다. 그냥 은근한 정도로만 흔들려요. 움직이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여유

있게. 그만큼 뿌리가 튼튼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낸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고 겪어내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들은 계속 출렁이고 바람에 못 이겨 죽을 듯이 아우성치며 곧 쓰러질 듯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든 적게 흔들리든 이 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구름 아래에 뿌리를 박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름 위를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도 바람 불면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흔들려도 아무 상관없음을 안다는 점입니다. 구름 아래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밤나무, 소나무에 동일시되어 그것을 ‘나’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나’라고 여기면 그 강렬한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나의 흔들림’이라고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방안에 서서 유리창을 통해 흔들리는 나무를 보듯이 아주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차게 흔들리는 저 나무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흔들리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바꾸자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다”라고 바꿔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절대적인 마음과 상대적인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생멸인연하지만 동시에 생멸인연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입의분立義分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중생의 마음에는 절대심과 상대심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 마음을 떠날 필요 없이 이 마음만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아, 이것은 상대적인 마음이구나. 아, 이것은 현상이네, 나

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야'라고 파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절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절대적인 마음을 따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떠난다 해도 절대적인 마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마음을 찾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지금 이 마음속에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를 찾아서 떠나려 한다면, 그 '떠나려는 마음 자체'가 일종의 상대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떠나려는 마음'을 통해서 '떠남이 없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봐야 돼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상대심이고 생멸심입니다. 즉 뭔가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바로 '생겨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겨난 마음을 죽여야만 절대심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지혜도 통찰도 없는, 그저 주체와 대상의 분열이 없는 삼매로 갈 뿐입니다. 알아챌 수 있는 지혜심마저 사라집니다. 그것은 흑암의 삼매예요. 그렇다면 절대심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생멸하는 마음이 곧, 절대 마음인 진여의 증거라는 것을 파악할 때, 진여상眞如相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의 작용을, 철저히 '작용'으로 볼 수 있을 때 절대 본체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법法이라는 것은 중생심을 말함이니 이 마음이 곧 일체의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괄하며 (즉, 일체의 절대적인 세계와 상대적인 세계를 다 포괄하며), 이 마음의 진여상이 대승의 본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마음의 생멸인연상이 대승 자체의 상相과 용用을 잘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구가 입의분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모습 즉, 상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강의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 '대승기신론'에 믿을 신행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부동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